

## 미주문단 순례

—오레곤 문학회



\*사진설명: 화요정기모임에서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주원, 임만빈, 태희영, 주정은, 신덕자, 김정아, 신한식, 정용철, 오영근, 오정방, 권태성 시인

### 오레곤 문학회의 탄생과 활동

오레곤문학회 회장 : 오정방

아름다운 오레곤 주에 처음으로 한인이 발을 들여놓은 것은 1911년이었는데 1세기가 가깝도록 2002년까지 다른 단체는 거의 다 결성되었지만 문학동호 단체나 기관은 없었다. 시애틀 쪽에서 1998년 12월에 처음으로 서북미문학인협회(서북미문인협회 전신)가 결성될 적에 오레곤에서 오정방이 창립멤버로 동참하면서 권태성, 강경식, 태희영 등 오레곤지역에서도 4명이 나중엔 회원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너무 거리가 멀어서 매월 모임에 참석하기란 보통 힘들지

않았다. 하지만 문학에 대한 열정이 그 발길을 막지 못해 권태성, 오정방, 태희영 등이 매월 또는 격월로 먼길을 다녀오곤 했다. 그렇게 하는 사이 오레곤지역에도 문학을 좋아하는 동지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시애틀까지 모임에 참석하기가 쉽지 않아서 자생적으로 오레곤에도 문학단체가 필요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판단 아래 조직을 서두르니 위에 언급한 4명에다 신한식, 주정은이 동참하여 모두 6명이 2002년 6월 25일, 화요일에 차이나 제드 레스토랑에서 ‘오레곤문학회’의 발족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레곤문학회는 매월 마지막 화요일 저녁에 정기모임을 갖고 신작들을 발표하면서 토론토 하고 격려도 하는 한편 창립 이듬해부터 창립일을 기념하여 그동안에 발표했던 작품 가운데 골라서 연간집 《오레곤문학》을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는데 지난해 창립일까지 4호가 나왔으며 현재 제5호의 편집이 진행 중에 있다.

4권을 내는 동안 문학회의 발전과 격려를 위해 문단의 중진들이 창간호부터 옥고를 보내주었는데 이 기회에 감사를 드리면서 명단을 무순으로 적게 되니 감개가 무량하다. 나호열, 김동찬, 박정순, 목필균, 홍인숙, 이양우, 김사빈, 김영교, 윤준경, 이윤희, 강학회, 오연희, 이승하, 김한순, 문혜숙, 장태숙, 편부경, 심관식, 백선영, 박경숙, 정해정 님 등이다.

그외에 다른 활동으로는 기일혜 수필가를 초청하여 문학세미나를 가졌고 매월 1회 ‘이달의 시’와 문단소식, 회원동정을 실어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그 외의 발자취는 아래 연혁에서 보는 바와 같다.

20세기 말인 2000년 봄, 한인이 오레곤에 발을 들여놓은 지 89년 만에 처음으로, 이곳에 이민온 지 13년 째가 되던 오정방이 문단에 첫발을 들여 놓으면서부터 한인동포사회에 문학에 대한 인식이 조금

씩 생기게 되었고 본국에서 최초의 문학포탈사이트인 <문학의 즐거움>을 통해 회원들의 작품이 발표되므로 해서 대외적으로 오레곤문학회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다.

6명으로 시작된지 5년 만에 회원은 3배로 늘어 현재 20명이 되었으며 이 가운데 오정방, 권태성, 오영근, 강성재 시인이 미주문협에 차례로 가입하여 <문학서재>를 통해서 열심히 작품을 발표하고 있으며 김정아, 김주원, 미셸염, 신덕자 등4명은 계간 《미주문학》 정기구독자이기도 하다.

현재 회원은 강성재, 고영욱, 권태성, 김선경, 김인자, 김정아, 김주원, 김진복, 미셸염, 신덕자, 신한식, 오성희, 오영근, 오정방, 이옥숙, 임만빈, 정용철, 주정은, 최경미, 태희영 등이다.

참고로 오레곤지역에서 본국이나 미주에서 등단한 문인들의 이름과 등단연도, 등단지, 장르 등을 정리차원에서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등단순)

1. 오정방/2000 세기문학 (시)/2000 미주중앙일보 (시조)/  
2005 한국육필시(수필)
2. 강경식/2001 한맥문학(시)
3. 권태성/2002 문학세계(시)
4. 오영근/2003 좋은문학(시)
5. 강성재/2004 한맥문학(시)
6. 윤봉한/2005 한맥문학(시)
7. 임만빈/2006한맥문학(시)
8. 김주원/2006 좋은문학(수필)
9. 최미영/2006 한맥문학(수필)
10. 신덕자/2007 미주문학(시)

## 오레곤 문학회 연혁

2002. 6. 25 문학을 사랑하는 동호인 6명이 뜻을 모아 차이나  
체드 레스토랑에서 창립되다.  
(강경식/권태성/신한식/오정방/주정은/태희영)  
총 5장 19조와 부칙 2항으로 된 회칙을 통과하다.  
초대회장에 오정방/감사 권태성을 선출하다.  
총무에 태희영이 임명되다.  
매월 마지막 화요일에 정기모임을 갖기로 하다.
2003. 6. 20 연간집 《오레곤문학》 창간호를 발간하다.  
초대시 4편, 문학강좌 1편, 회원작품 41편(시 39/  
수필 2) 수록  
6. 24 제2차 정기총회를 갖다.(회원 14명)
2004. 6. 25 연간집 《오레곤문학》 제2호 발간하다.  
축시 1편, 초대시 4편, 회원작품 65편(시 62/수필  
2/칼럼1) 수록  
6. 29 제3차 정기총회를 갖다.(회원 16명)  
2대회장에 오정방(유임), 감사 오영근 선출.  
총무에 임만빈이 임명되다.  
7. 20 월보 〈뉴스 레터〉 창간하다.
2005. 6. 25 연간집 《오레곤문학》 제3호 발간하다.  
초대시 4편, 초대수필 2편, 회원작품 52편(시 52/

수필 4) 수록

6. 28 제4차 정기총회를 갖다.(17명)

2006. 6. 25 연간집 《오레곤문학》 제4호 발간하다.  
초대시 4편, 초대수필 1편, 회원작품 42편(시 38/  
수필 3/칼럼 1) 수록

6. 27 제5차 정기총회를 갖다.

오정방 현회장을 3대 회장으로, 오영근 현감사를  
유임시키다. 총무 임만빈, 회계 태희영도 유임되다.

2006. 7. 22 제1회 '강과 산과 우정이 있는 시회(詩會)'를 회원  
과 초청인사 등이 모여 화이트 셀몬에서 갖다.

2007. 6. 25 연간집 《오레곤 문학》 제5호 발간하다. 초대시 1  
편, 초대칼럼 1편, 초대콩트 1편, 초대동화 1편,  
회원작품 39편(시 36/수필 1/칼럼 1/콩트 1) 수록.

2007. 6. 27 제6차 정기 중회를 갖다.

## 아름다운 오레곤과 10대 관광명소

서북미에 자리잡고 있는 오레곤은 아름답기로 이름이 나있다.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수림이 무성하고 이로 인해 공기는 한없이 맑으며 우기를 벗어나면 드없이 맑은 하늘과 푸른 숲, 갈색의 초원과 하얀 눈산의 조화가 아름답기 이루 말할 수 없다. 바다면 바다, 강이면 강, 폭포면 폭포, 호수면 호수 등 미주 안에서도 이름난 명소들로 인하여 매년 관광객들은 증가일로에 있으며 관광산업은 목재산업, 식품산업, 전자산업 등과 더불어 오레곤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산업중의 하나이다. 특별히 역사적으로 보자면 서부에서 가장 먼저 생긴 역마차 길이 있고 미국에서 가장 발달한 화산지대의 특징을 관찰할 수 있으며 사람의 손이 아직 미치지 못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도 적지아니 찾아볼 수 있으니 가히 관광의 천국이라 할 수 있다. 관광명소를 일일이 다 소개하자면 지면이 모자라겠기에 포틀랜드를 중심으로 필자 임의로 추천하는 10대명소만 간추려 소개하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오정방)

### 1. Mt. Hood

포틀랜드 시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가장 높은 산으로 높이가 11,235피트이며 사시사철 눈이 덮혀있다. 이곳에선 눈산으로 불린다. 주위에 스키장이 많으며 중턱에 있는 Timberline산장에는 여러 가지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가끔 눈과 악천후로 산악조난사고가 발생하는데 2007년에도 한인혼혈 변호사 일행이 조난사하여 타주에서도 이름을 기억하는 포틀랜드의 상징적인 산이다.

## 2. Mt. Larch

멀트노마 폭포 뒤에 있는 산으로 정상 200미터 지점까지 자동차 운행이 가능하며 정상에 오르면 뷰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맑은 날이면 원근 각지에 있는 5개의 눈산들을 한눈에 파노라마처럼 볼 수 있다.

## 3. 장미공원

포틀랜드 다운타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으며 온갖 장미들이 전시되어 있다. 포틀랜드를 장미의 도시라고 부를 만한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

## 4. 오레곤 트레일 종착지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에서부터 시작하여 오레곤주 포틀랜드의 오레곤 시티까지 이르는 2천 마일의 역마차 길을 오레곤 트레일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개척자들이 역마차를 타고 록키산맥을 넘어 오레곤까지 온 대장정의 온갖 자료들이 종착지인 Oregon City에 전시되어 있다.

## 5. Multnomah Fall

미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폭포이면서 풍부한 수량으로 인해 언제나 관광객이 붐비고 있다. 여름철엔 특별한 휴식처가 되고 있으며 트레일을 따라 꼭대기로 이르는 등산로도 일품이다. 또한 가까이에 있는 크라운 포인트에서 바라다보는 컬럼비아 강의 도도한 흐름은 장관이다.

## 6. O.M.S.I(Oregon Museum of Science and Industry)

자연과학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과학관으로 어린이들이 자

연과학의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꾸며져 있다. 바로 주위에 동물원도 있어서 아이들에겐 안성맞춤 코스이다.

### 7. Crater Lake

오레곤의 남부에 소재하며 오레곤의 유일한 국립공원으로서 수천 년 전에 폭발한 분화구에 물이 고여서 마치 백두산 천지를 방불케 하는 아름다운 곳이다. 호수내 유람선 관광도 가능하다. 주위에 있는 Diamond Lake는 가족끼리 캠핑과 낚시를 즐길 수 있는 명소이기도 하다.

### 8. Kah—Nee—Ta

인디안 보호구역으로 천연온천수를 이용한 수영장과 온갖 오락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가족 중심으로 하루를 보내기에 적당한 곳으로 포틀랜드에서 동쪽으로 2시간 거리에 있다.

### 9. Sea Lion Caves

경치가 좋기로 이름난 하이웨이 101 해안도로 옆에 위치한 곳으로 오레곤 해안 관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지상에서 208ft나 엘리베이터를 이용, 동굴로 내려가는데 특히 겨울 폭풍 때는 수백 마리의 Sea Lion을 볼 수 있다.

### 10. Silver Falls

포틀랜드에서 I-5를 타고 남쪽으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아름다운 공원으로 10여 개의 크고 작은 폭포들이 밀집해 있는 곳인데 여름철엔 많이 붐빈다.



## 강성재

### 귀향

어찌하여 이 끌인가  
아직도 가난의 허물 못 벗은  
내 고향 웅천<sup>1)</sup>  
솔숲에 앉아서  
솔방울 내던지며  
여태도 허기진  
아재 아지매들의 목소리가  
허리 꼬부러진  
바람 타고 올라와

아이구 미국아재 아이씨껴?  
통기도<sup>2)</sup> 읍씨 우짖 일이씨더  
보자, 한 사십년은 됐지 아매도<sup>3)</sup>?  
낮은 익은데  
소리가 낮설구나  
생각 나니껴 이 소낭구<sup>4)</sup>?  
저놈의 송구썩질 앵가이드<sup>5)</sup> 벗겨가



2004년 한맥문학 시부문 당선. 오레곤 문학회 회원. 미주 한국문인협회 회원.

송구떡<sup>6)</sup> 징그럽게 해 먹었지러  
허기사 그땐 사는게 사는거이 아녔응께

저승길이 널 모래 같은  
먼 촌 형수 송곡 아지매  
아지매요 여태도 사는게 이리 힘드니까  
아이씨더 올때나 조은 시상인디  
천형같은 가난  
대 물림 앓으려고  
억척같이 새끼 꼬고  
품앗이 하더니  
어찌 상기도 저리  
서리맞고 사시는가

허물어진 돌담들이  
부서져 뒹구는 기왓장이  
길손처럼 찾아든  
옛주인의 가슴앓이를  
말없이 지켜 보는데

풀뿌리 하나에도  
돌맹이 하나에도  
소식적 꿈들이 숨쉬고 있어  
차마 길손인양

떠날 수가 없구나

- 1) 웅천 : 경북 안동시 북후면 웅천동
- 2) 통기 : 기별
- 3) 아매도:아마도
- 4) 소낭구 : 소나무
- 5) 앵가이도:여지간히도
- 6) 송구떡 : 혹은 송기떡 소나무 속껍질을 벗겨서 밀가루에 버무려 떡처럼 만들어 먹던 것.

## 권태성

### 이렇게 하루를 살고 싶다

하루라는 이름의 사탕을  
내 호주머니 속에 몇개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나는 알지를 못한다  
고로 몇개의 사탕이 호주머니에 남아 있는지도  
나는 알지를 못한다  
단지 내가 아는 것은  
지금 까지 몇개를 까 먹었는가 와  
어느날 문득 호주머니가 가볍다는 사실에  
실망을 했다는 것이다

더욱 실망인 것은  
그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놈들을  
귀찮다고 맛도 모르고, 마구  
통채로 삼켜버린 때가 많았다는 사실이다  
이제 몇개 남지 않았을 호주머니 속 사탕  
쳐녀 젓가슴을 애무 하듯이  
입속에서 살살 녹혀



1947년 전주 출생. 2002년 문학세계 신인상 수상. 오레곤 문학회, 문학의 즐거움 회원.

혀끝에 와 닿는 그 감칠 맛을  
천천히 음미하며 맛보고 싶다

## 김선경

### 연인들이여

50여 년 전 모아놓았던 편지꾸러미를 끌러본다  
해묵은 잉크 빛에 서린 그이와 나의 육필  
문득  
그 때 이메일이 있었더라면  
그리움의 추억은 추억 속에 환상 뿐  
흔적도 없었을 것을

빛바랜 누런 편지지 위에  
그 날의 봄바람 안개처럼 피어  
생생하게 되살아오는 날들이여  
작열(灼熱)하는 정열이  
스페인의 무희처럼 난무하고  
청렬한 사상이 불을 뿜는다

썩아 썩아 은하수 흐르는 소리  
수액 향기 풍기는 태릉의 수림(樹林)  
소쩍새 울던 우이동의 밤



1963 경희대 음악대학 졸업. 1979~88 세계시인대회, 세계펜대회 참석. 97 영매상 수상. 현재 한국문인협, 부산문인동인, 오레곤문학회원. 저서로는 수필집 『이국의 목련』 등, 동화집 『토끼와 사냥꾼』 등, 시집 『꽃수레』 등 10 여권이 있다.

뚝섬 깡마른 포플러에 얹힌 조국의 아픔

시간을 초월한 청순한 그리움은  
화석이 되어 편지봉투 속에서  
어제일인 양 숨쉰다  
속삭이는 듯 들려오는 연연함이어

이메일이 없었던 시대가 남긴 유산  
연문 편지는 꾸러미가 클수록 활활 탄다  
시대에 뒤떨어진 나만의 아늑한 향기  
아쉬워 아쉬워

연인들이여, 펜을 들어봐

## 김정아

### 딸기 밭에서

꼬집힌 뺨을 숙이고  
감미로운 손길을 기다린다

고운 정열 샘이 나서  
소나기가 꼬집었나

그래도 예쁘다  
파아란 이마 아래서



동국대학교 영문과 졸업. 한국 문정회 회원. 샌프란시스코 유학. 오레곤한인회 부회장 역임. 오레고니안 신문 수퍼바이저. 트스트마스트 프레지던트. 오레곤문학회 회원



## 미셀 옴

### 모정(母情)

양말 위로 드러나는  
야위신 발목  
허둥지둥 나오시다  
넘어지실라

돌아서서 바라보면  
꺾어진 골목 모서리까지  
서 계시는 모습

물기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는  
뽕양게 투영되어 오는  
거기엔  
끊없는 사랑이 서 있다.



1959년 서울 출생. 1982년 유학차 시애틀로 도미. 2003년 오레곤문학회 회원. 교지 《벤엘》 편집위원. 현재 Portland, Oregon 주에 거주.

## 신덕자

### 시는 푸른 바람에 실려와

세상 사는 일이  
힘들고 지칠 때에  
내 마음은 숲으로 향한다  
풀잎에 고인 맑은 이슬 두 손에 고이 받아  
눈과 마음 행구어 내고  
새들 어둠을 쫓는 이른 새벽길을 간다  
넓은 보라빛 물안개 사이로  
고은 아침 햇살 비치면  
잠자던 나무들은 푸른 몸 일으키고  
풀벌레의 초롱초롱 빛나는 눈망을 사이로  
대자연의 아침이 밝아온다  
목말랐던 가슴 깊은 숨 들이켜 고른 숨 쉬고  
내 안에도 물기 오른 가지처럼 다시  
꿈과 희망이 피어나면  
시는  
우수수 나뭇잎 흔들며 지나가는  
푸른 바람에 실려와 천사의 음성으로



1951년 부산출생, 한국에서 연극활동. 1990년 뉴욕이민. 2003년 오레곤문학회 회원. 2007년 계간 《미주문학》(여름호) 시부문 신인상. 현재 Vancouver, Washington 주에 거주.

황홀한 숲속의 아침을 노래한다

오영근

## 기다림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

얼마나  
멋적은 일인가!  
기다릴 것이 없다는 것.

기다릴 일을  
만들어야 한다  
죽을 때 까지.

아니  
죽은 후에는  
영원을 기다려야 한다.

얼마나



2003년 한국《좋은사람》에 정공채, 윤강로 시인 추천으로 등단.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문리대학 교수 퇴임. 오레곤 문학회원,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저서로는 전공서적과 『아담과 이브의 배꼽』 등 20권 번역 및 저술, 시집 『시느는』, 『시는 사랑』

신나는 일일까?  
영원히 죽을 때까지  
기다림은!

## 오정방

### 어머니의 허리

나, 어릴 때에는 철이 들지 않아  
느끼지 못한 것 하나 있습니다  
논에 모를 심거나  
밭의 김을 땀 때에  
어머니는 가끔 허리를 펴고  
후유 하고 긴 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앞드려  
하던 일을 묵묵히 계속하셨습니다

나, 어머니의 그 나이가 되어서  
힘든 농삿일은 아니건만  
정원의 잡초를 뽑아주거나  
꽃밭에 부토를 하게될 적에  
굳은 허리를 구부리게 되는데  
익숙하지 않은 일로 인해  
자주 허리를 펴면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리 참으셨을까 어머니는



《세기문학》시, 미주《중앙일보》시조, 《문학과 육필》수필 부문 등단. 현재 미주한국문인협회 이사. 오레곤문학회 회장. 시집 『다시 태어나도 나는 그대를 선택하리』, 『그리운 독도』, 『영혼까지 독도에 산골하고』(공저)

## 정용철

### 함성(喊聲)

1919년 3월

가슴 속에 묻혀있던

애국의 정열이

한꺼번에 분출되어

침략자를 떨게 한

2천만의 함성

— 대한독립 만세 —

— 대한독립 만세 —

1945년 8월

침략자가 도망치고

망명객이 돌아오고

광복의 불꽃이

활 활 타오른

3천만의 함성

— 해방 만세 —

— 자유 만세 —



1918년 2월 28일 경북 영양에서 출생. 한국과 미국에서 55년간 목회. 찬송가 369장, 378장 작사자. 저서로는 『하늘과 땅의 조화』(성역 50주년 기념) 외 설교집 다수.

2006년 6월

월드컵에서 태극(太極)팀을 응원하는

빨간 물결의 애국심

하나로 단결된

5천만의 함성

— 대 한민국 —

— 대 한민국 —

그렇다

끊임없이 이어져라

더 힘차게 외치어라

1억 2억의 목소리가 되기까지

— 자유민주주의 만세 —

— 대 한민국 만세 —



## 주정은

### 언제쯤이면

언제일까  
까만 그림자처럼  
너의 형상 지워질 그날은

하얀 미소 다정한 음성  
하얀 백지되어 흔적없이  
사라져 버릴 그날은

언제일까  
흘러가는 구름처럼  
너의 기억 잊혀질 그날은

따사로운 손길 포근한 가슴  
뿌리 안개되어 느껴질 수 없는  
아득한 옛일되어 버릴 그날은



오레곤문학회 창립멤버. 자영업. 현재 Beaverton, Oregon 주 거주.

## 태희영

### 세 송이 수국꽃

투명한 비닐 속에 담겨진 꽃 한 다발. 화사한 분홍빛을 띤 색채들이 마치 면사포를 쓰고 있는 새색시처럼 보인다. 그 속에 살포시 숨겨진 꽃 이름은 수국. 샵핑 카트를 끌고 그 앞을 지나치려는 순간, 흡인력이 있는 듯한 세 송이의 수국이 나의 발걸음을 정지시키며 옛 추억의 세계로 유인하고 있다.

수국 세 송이 뒤로 오버랩되어 조금은 빛바랜 한 장의 아득한 가족 사진. 그 위에 떠오른 행복했던 세 식구의 모습들이 나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금부터 40여년 전의 젊은 아빠와 엄마, 그리고 어린 한 계집아이의 지나온 인생의 여정이 담겨져 있는 듯한 세 송이의 수국.

망설임 없이 푸집한 수국 한 다발을 허둥지둥 사갖고 온 후 아빠 엄마 딸의 키 순서대로 조심스러이 잘라 본다. 80년대의 엄마는 가장 짧은 수국은 나라고 한다. 그러나 70년대의 나는 이젠 내가 엄마보다 더 크니까 키 작은 꽃이 엄마라며 췌알거리고 있다.

숨사탕처럼 달콤했던 그 대의 역사를 세 송이의 수국에 담아본다.



전 서북미문학인협회원. 오레곤문학회 창립멤버. 현재 Beaverton, Oregon 주 거주.

어느샌가 황하니 지나간 소녀였던 시절들을. 그리고 지금은 석기시대의 유물처럼 가슴에 알알이 사무쳐 있는 단란하고 행복했던 모습들을. 또한 지금은 과거의 전성기로 남아있는 애절한 우리 세 가족의 이야기들을……

그 옛날 나의 어린시절.

엄마가 아파서 요양원에 머물러 있을 때 공주에서 서울로 편지와 함께 부쳐온 엄마의 독사진. 수국이 한 아름 피어있는 화단 앞에서 미소를 함빡 머금고 서있던 청초한 엄마의 모습. 오랫동안 묵었던 엄마의 활동사진 한 장이 오늘따라 유난히 밀물되어 나의 가슴을 적시고 있다.